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Many are Called, Few are Chosen.)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완전치가 않아서인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좀 더 정확하게 그 차이점을 보실 수 있도록 다시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년반 공생애의 기간동안 (눅 4:43) 그리고 부활 하신후 40일 간의 기간에도(행 1:3)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자주 받으신 질문은 “누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냐”와 “언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 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삼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절은 마 14:22 절의 말씀인데..., 주님은 마태 21장에서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여러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하신후,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청함과 택함 그리고 다수와 소수가 비교 되어지는데, 여기서 ‘청함’이라는 단어는 ‘클레토스’를..., ‘택함’이라는 단어는 ‘에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의 뜻으로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즉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에클레토스’는 ‘정선하여 선택된 자’라는 뜻이며 ‘**성별되어 바쳐진 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14절 한 구절에는 ‘클레토스’와 ‘에클레토스’ 두 단어가 다 사용되었습니다. “선택은 부르심과 자동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후, 충성(fidelity)은 선택 되어짐에 필수적 조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 17:14 -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
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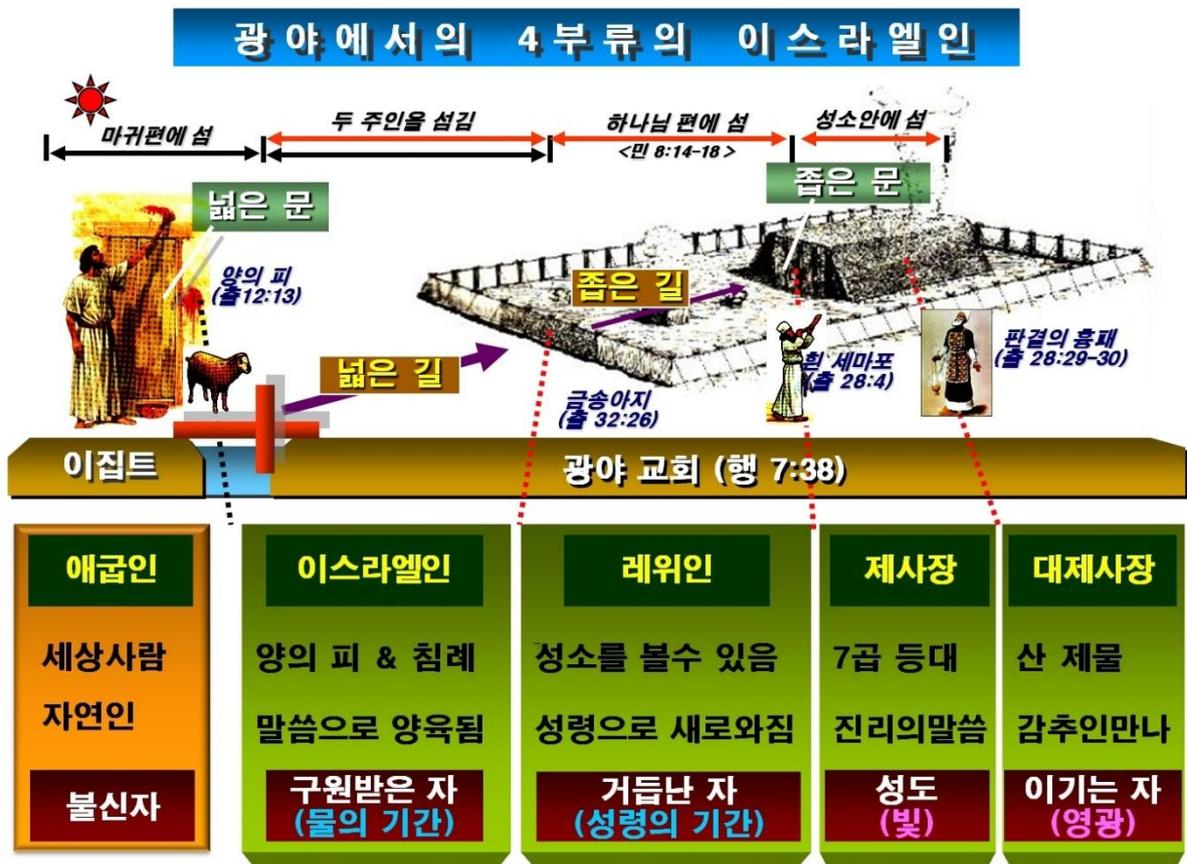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는 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를 하였으나 불순종하여 초대에 응하기를 거절한 사람, 초대에는 응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도 있어 그들은 선택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의 초대에 따르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의’인 흰세마포(계 19:8)를 입은 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함을 받았

지만, 정작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기간동안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막10:23-26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마 7:14)임을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문을 구원의 문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오늘 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과 하나님나라의 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G 2-3

‘넓은 문’과 ‘좁은 문’ 즉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 즉 은혜의 문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나라의 문으로서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0:9절의 문은 은혜의 문인 반면, 마 7:13절의 문은 협착하고 좁은 하나님나라의 문입니다. 주님은 눅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로 구하는 자들은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나라를 멸하신 후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계 11:15)를 아예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문은 넓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의 발라진 그 의로운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선 태양의 빛 아래 살았지만, 홍해바다를 건넌으로 침례를 받고 구름아래에 거할 때는 불기둥의 빛(복음의 빛)을 보며 살았습니다. 비록 하늘의 양식인 만나(초보적인 음식인 ‘젓’)를 먹고 살았지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땅을 그리워하며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생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민 11:5)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즉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도 광야의 이스라엘인들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은밀히 더 신뢰하는 것은 우상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호주머니(재물)를 더 신뢰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통장에 10억원이 들어 있다면 그 통장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할 자들이 우리 믿는 이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광야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음식을 동경하며 음란히 즐기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의 문을 지났으나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벰전 3:21 -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나라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즉 12지파의 모든 이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출 19:6)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계획은 취소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스라엘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올립니다. 진정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려거든 모세 자신의 이름을 먼저 지워달라는 기도(출 32:32)를 오리고,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을 푸시고 이스라엘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지만(구원을 받음),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안식에는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가 없어 그들 대신 제사장의 직임을 맡을 레위인들이 선택되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금송아지의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출 32:24-26)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서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인들은 눈이 멀어 서야 할 곳을 보지를 못하고 또 갈 곳을 못 찾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자신들이 서야 하는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호흡이 시작되며 또 눈이 뜨여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이 서야 하는 곳을 볼 수가 있었으며, 성소 뜰(마당)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보조하며 거룩한 성소 외부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물의 기간(모태)을 지나 막 태어난 아기 즉 눈이 열려 볼 수가 있는 거듭남을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레위인들은 눈이 열려 볼 수가 있었음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지만(벧전 3:21), 아기가 태어나서부터는 환경이 물에서 공기(성령)로 바뀌게 됨으로, 공기(성령)를 호흡하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간이 뒤 따릅니다. 벧전 1:23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딤후 3:5)

좁은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엡 4:22-23) 레위인들은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엡 5:25)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물에서 거듭나 레위인이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새사람(성도)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은 우리의 옳은 행실인 '의'의 세마포를 입는 제사장

의 반열로 올라섭니다. 오로지 '의'의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인 모두가 은혜의 문인 구원의 문을 통과했지만,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선택되어졌고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계열만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나라의 예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사61:6)들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겹옷을 입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 61:10) 이 두 가지의 옷을 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의'의 옷(계19:8)을 입어야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만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아, 구원 받는 자들이 거하는 만국(KJV 계 21:24 –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 에서 살게 되며, 의의 겹옷을 입은 자는 제사장의 반열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인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나라의 문이 지극히 좁음을 주님께서서는 설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정의되어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경구절들은 행함(열매)을 부각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흰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가 들어가는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왕과 같은 제사장들을 백성으로 삼는 나라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대개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집니다. 험악하고 좁은 길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어렵게 찾아야 하는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